

연대항쟁 성추행 진상규명 투쟁 제안서

수신 :

발신 : 3기 전여대협

지난 3월 29일 신문 한구석에 충격적인 기사를 하나 맞닥뜨리게 되었다. '한총련 성추행 무혐의 처리'라는 제목의 기사가 그것이다.(신문기사는 아래에..) 김영삼정권이 이제 정말 제정신이 아닌듯하다. 연대항쟁에서의 살인적인 폭력 진압, 여학우들을 희롱하는 공권력의 만행에 대해 일언반구의 사과도 하지 않았으면서 그것도 모자라 40여명의 여학우들이 진술서를 통해 증언하고 있는 성추행 사실들을 부인하고 나서는 뻔뻔한 모습을 보니 말이다.

연대성추행고소와 관련한 기간의 상황전말

지난 8월 20일 연대에서 대대적인 연행이 이루어지고 난 후 컴퓨터 통신에, 그리고 풀려나온 학우들의 이야기를 통해 성추행의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이에 사회각계 단체들이 모여 비대위를 구성하였고 여연, 전여대협,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연합 인권위등이 함께 실제 사례, 피해 상황을 총화할 것을 결의하여 9월내내 폭행, 성추행 등에 대한 총화를 진행하였다. 사진, 진술서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학단위에서는 연대항쟁 성추행에 대한 대학우, 국민에 대한 서명운동으로 진상을 알려내고 여연 등의 단체와 경찰청 항의방문, 고소고발투쟁을 준비하면서 추미애, 유선호 의원들을 통해 국회에 제기하려는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9월 13일까지 총화된 인권탄압의 사례들을 가지고 비대위에서 9월 13일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때까지 총화된 성추행 사례들은 전체 108건이었으며 녹취록은 전체의 30건정도였다.

이후 추미애 의원에 의해 국회 국감장에서 연대에서 여학우들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여론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여연을 중심으로 경찰청, 국회로 항의방문이 조직되기도 하였다.

어려한 과정 속에서 7명의 여학우가 11월 20일 고소장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리고 여연, 인권운동사랑방이 이 여학우들을 책임있게 총화하고 모임을 가져나갔다. 그러나 방학이 되고 연대항쟁 성추행사건에 대한 여론이 식어가면서 내실있게 이 7명의 여학우들을 챙겨내지 못하였고 2월 11일에는 고소자 모임을 정말 오랜만에 가져가려고 했음에도 잘 진행되지 못하였다.

1월 30일 여연, 여대협, 인권운동사랑방, 전연인권위, 서울대관악여성모임연대 등이 모여 테이블을 마련하고 그동안의 공백기를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 안에서 그동안의 조사상황을 공유하고(진압경찰 현장책임자11명에 대한 조사, 성추행당한 여학우들이나 목격한 학우들의 진술서에 드러난 경찰시장들을 조사하였다고 한다), 검찰이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이 사건을 진행중인지 공유하는 자리였다.

<<신문기사 발췌>>

뉴스제공시각 : 03/29 19:12 출처 : 조선일보

제목 : [서울지검] 연대시위 성추행 사건 무혐의 처리

서울지검 형사4부(부장·이종왕)는 29일, 작년 8월의 한총련 사태 당시 연행-수사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여대생 7명과 여성단체가 당시 경찰청장과 현장진압 경관 등을 상대로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처리했다.

검찰은 (당시 상황을 담은 방송사의 녹화테이프를 정밀 검토하고 고소인과 피고소인들을 조사했지만 당시 경찰이 성추행을 할 상황이 아니었고, 고소인 측이 경찰관을 특정하지 못하는 등 혐의점을 찾지 못해 무혐의처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은 (40여명의 피해여대생들이 한결같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는데도 검찰이 녹화테이프

등을 근거로 무혐의 처리한 것은 진상조사의 의지가 없기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권대열기자>

뉴스제공시각 : 03/29 11:21 출처 : 조선일보
제목 : [검찰] 한총련 성추행 고소-고발 무혐의 처리

서울지검 형사4부(부장·이종왕)는 29일, 지난해 한총련 사태 당시 연행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여대생 7명과 여성단체등이 당시 경찰청장 및 현장진압 경관 등을 상대로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이날 일괄 무혐의처리했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고소장에 나타난 피고소, 고발인자체가 경찰청장을 제외하면 특정돼있지도 못하고 고소인 진술도 명확하지 못해 신빙성을 두기 어렵다”며 “성추행혐의사실을 인정키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현장기동대 중대장들을 소환조사하고 현장상황을 담고 있는 2개 방송사 녹화테이프를 입수, 검토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대항쟁 성추행 진상규명 투쟁의 중요성

연대항쟁에서의 살인적 폭압이 되살아나는 듯하다. 김영삼정권은 군사독재도 감히 해내기 어려운 살인적이고 폭압적인 군사적전을 방불케하는 진압작전으로 우리의 동지들을 연행, 구속해 갔다. 거기에 부족하여 마치도 이국의 침략군대가 우리의 아녀자에게 그랬듯이 마치도 위안부를 다루는 일본군대처럼, 주한미군의 야수적 만행처럼 그렇게 우리 여학우들을 유린하였다. 누가 이들에게 우리 여학우들을 성추행하고 폭행하고 유린할 권리를 주었는가!! 연대항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으며 끝낼수 없다. 배고픔과 두려움의 고통을 함께 나누던 동지들이 지금 나의 곁에서 함께 투쟁하고 있고 아직까지 풀려나오지 못한 동지들이 있기에 우리의 투쟁은 계속되는 것이다.

동지애적의리로 50만의 투쟁이아니라 백만의 투쟁을 일구어 가야 한다

이제 연대항쟁을 말로만 기억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에게 소중한 투쟁전통으로 남겨질 연대항쟁이라면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진상을 규명해내고 살인적진압을 자행한 김영삼정권과 그의 하수인 경찰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투쟁으로 힘있게 일어서야 한다. 그것이 연대에서 성추행당하고 정신적 후유증까지 가지면서도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우리 동지들에 대한 마지막의리일 것이다.

야수적인 진압도 부족해서 여학우들에 대한 엄청난 언어폭력, 성추행으로 까지 탄압을 벌여왔던 반인륜 패륜정권 김영삼정권에 대한 분노의 적개심으로, 그리고 고소했던 7명만의 투쟁이 되지 않게하겠다는 결의가 무색하게도 진정 동지애로 책임지지 못했던 우리의 과오를 반성하면서 더 높은 결의로 연대항쟁성추행투쟁을 벌여가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법제도적인 공간을 통해서 우리의 주장과 요구를 실현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또다시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 오직 학우대중과 함께 투쟁으로 싸워갈 때만이 우리의 승리는 가까울 것이다.

투쟁방도

1) 선전전

- 대자보, PC, 유인물 등을 통해서 연대항쟁 성추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낸다.

2) 광고투쟁

- 학우들에게 연대항쟁성추행과 관련한 무혐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대면서 서명을 받고 100원 모금을 한다.

광고문구는 아래의 틀을 기본으로 하고 대중적인 광고투쟁을 벌여가자!!!

이제는 성추행 오늘은 시치미 뚫!

통일하자는데 성추행으로 막아서고

사과는커녕 오리발만 내미는 반인륜, 반여성정권

김영삼정권 타도하자

****지역여대협/전여대협**

-광고투쟁은 한겨레 신문을 비롯한 각종일간지, 지역신문 등 최대한으로 다각적으로 벌여가자!

-1차적으로 4월 18-19일, 2차적으로는 4월 28일 조통집회에 맞추어 광고투쟁을 총화했으면 합니다.

한총련 조통위와 함께 공동으로 투쟁을 벌여갈 것을 논의하였습니다. 연대항쟁 성추행전상규명투쟁은 조국통일투쟁사에 아로 세겨질 영웅적인 투쟁이었던 만큼 그 안에서 화생되고 유린당하던 동지들을 책임져내는 것은 한총련 백만의 압무요, 과제일 것입니다. 각 지역여대협도 지역총련과의 공동투쟁을 잡아내고 논의장을 마련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에서 대중투쟁의 흐름을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지 논의해보았으면 합니다.